

꿈청진기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제1호

발행처 매일신문교육문화센터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홈페이지 www.youngdream.co.kr 전화 053-251-1798

'꿈 찾는 청소년' 온라인 진로탐구 기업탐방

대구시교육청·매일신문사가 진행한 청소년 진로 탐색·설계 지원 프로그램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는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을 실시하였다. 꿈청진기는 청소년 기자단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온라인 진로직업체험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기업 및 직업 취재, 직업인 인터뷰 등 현장 밀착형 직업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현장 체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기업 및 직업인을 취재하였다. 기자단들은 직업정보, 기업분석, 직업인 특성 등을 미리 사전에 조사한 후 인터뷰를 토대로 보고서, 기사 작성, 영상물 제작 등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결과물은 추후 온라인 DB로 제공하여 지역 초·중·고등학교 진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에서 총 17개 팀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대구 지역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형식으로 취재하며 기자단 활동을 하였다. 이들이 취재한 기업은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닥터스영상의학과, 매일신문사, 에버웰푸드, 웃는얼굴아트센터, 카이엔터테인먼트, 한국뇌연구원, 해성병원, 행복한찾집, LI:UM(리움), THE IMC(더아이엠씨)이다.



정화여고 'BEAT'팀 학생들이 한국뇌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뇌 관련 지식이 담긴 책을 찾아보고 있다.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해성병원 관계자들

기사작성, 광고제작, 동영상 부문에서 선정된 최우수상 5개팀



매천고 '팩트취재'

매천고 소예진, 구정은, 김나연 학생이 구성한 팀 이름은 '팩트취재(지도교사 윤경희)'다. 이들이 탐방한 기업은 뇌 분야 국책 연구기관 '한국뇌연구원'과 재활치료 전문병원 '해성병원'이다. 팩트취재 팀은 뇌와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해성병원을 통해 재활치료, 임상병리, 행정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병원 내에서도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뇌연구원을 조사하면서 목표, 연구 현황, 뇌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팀은 기사 작성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산고 '시리얼(See_Real)'

남산고 '시리얼(See_Real·지도교사 박재문)' 팀의 박민지, 김성민, 박서연 학생들이 탐방한 기업은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THE IMC'와 메이커 스페이스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이들이 빅데이터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질문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업기업의 발판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점은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수확.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그 틈새를 찾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들은 기사 작성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화여고 '프롤로그'

정화여고 하지원, 김가연, 권나현, 윤고운 학생은 '프롤로그(지도교사 정은아)' 팀을 꾸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팀이 인터뷰한 기업은 '매일신문사'. 기자의 길을 들여다 보려던 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 부분은 '언론은 공기와 같다'는 기자의 말이었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신문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묻자 나온 답이었다. 학생들은 '매일의 기록으로 내일을 밝히다'라는 참신한 홍보문구와 함께 광고 제작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화여고 'BEAT'

정화여고 'BEAT(지도교사 정은아)' 팀의 이다연, 강서연, 김예진, 이규빈 학생이 탐방한 기업은 '매일신문사'와 '한국뇌연구원'이다. 인터뷰 중 생긴 호기심은 관련 도서를 읽으며 해결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넓혔다. 인터뷰 후에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활동 과정을 소개하면서 진로를 확장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들은 동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일여상 '백신'

제일여상 '백신(지도교사 도지영)' 팀에는 오류경, 김예진, 김태은, 윤은지, 차영현 학생이 참가했다. 백신 팀은 도시락 전문업체 '에버웰푸드'와 예술, 공연, 전시의 장 '웃는얼굴아트센터'를 취재했다.

이들은 에버웰푸드와 웃는얼굴아트센터가 갖는 브랜드 이미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 속에서 느꼈던 기업 이미지와 강점을 고려해 결과물을 제작했다. 백신 팀은 광고 제작과 동영상 두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매일신문 채정민 기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전문기업

메이커하우스 리움



기업 소개

메이커하우스 리움은 창작자의 아이디어 실현과 디지털 제조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3D프린터, 레이저커파, 종이커파, CNC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카페형 공방을 운영하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 전문 기업이다. 카페형 메이커 스페이스(Fab Cafe)와 교육장(메이커 체험·교육, 디지털 전문 기술 교육 등)을 운영 중이며 기술(제품 설계, 제작) 및 판매(메이커KIT)를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10월에 시작하여 아직은 소박한 규모이다. 1층은 카페 2층에는 제작하는 공간이 있다. 바리스타, 디자이너, 엔지니어, 회사 활동 기획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명의 직원들과 함께한다. 3D프린터나 각종 디지털 장비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주문 제작하기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로 눈사람 가슴기, 나만의 홈 카페 코르크 코스터, 이니셜 키링 등을 만들기도 한다. 체험과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경력은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다.

메이커하우스 리움의 상품 및 서비스로는 FAB CAFE의 아크릴 스텐실을 직접 만드는 시그니처 메뉴 리움 라테와 고객의 생각을 현실화하고 나만의 D.I.Y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제작 공간, 앞서 말한 원데이 클래스, 주문 제작 판매 등 장비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 주력으로 성장할 만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리움의 가장 큰 강점은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와는 달리 카페라는 분야를 접목시켜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페를 방문해 메이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메이커 교육과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리움의 매출은 카페 수입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부품 판매, 제품 제작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영업에 제한을 받았고 교육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여성 그린나래〉

기업 현황

메이커하우스 리움, '메이커 문화 확산 교육'에 앞장서

메이커(maker)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제작(DIY: Do It Yourself)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협업·융합하며 가치를 확대하면서 생산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메이커들의 기술 기반 메이킹을 위한 공동 작업 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라 한다.

리움은 2019년 10월에 시작해 아직은 소규모지만,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와는 다르게 카페와 교육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리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선정된 일반 랩으로 현재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체험과 교육, 홍보를 통해 앞으로 2호점, 3호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리움을 방문하는 주 고객 연령대는 중학교 1, 2학년생과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가장 많으며 20대 청년부터 30대도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위해서는 장비는 물론 정보, 교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움과 같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는 고객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수요 증가와 함께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시장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볼 수 있다. 〈제일여성 그린나래〉

INTERVIEW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하우스

이일용 메이커하우스 리움 대표



Q.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으로 떠오른 메이커나 메이커 스페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보다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Q. 리움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와는 다르게 카페와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이커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도 카페 공간을 둘러보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또 한 사람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Q.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데 영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아이디어, 다른 용도와 디자인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Q. 이 분야의 일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호기심이겠죠. 어떤 일이나 현상, 물건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기업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텐데, 리움은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성실함을 우선으로 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과 도전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술이나 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분야에서 자격증을 한두 개 갖고 있다면 더욱 좋겠죠.

Q. 메이커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경우 엔지니어, 디자이너, 바리스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떤 일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전문성을 키워가는 일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여성 그린나래〉

미래를 선도하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IT 기업

The IMC



기업소개
및 현황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The IMC는 ‘텍스톰’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과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주로 대학원생, 교수 같은 연구원들이 사용하며 AI 인공지능 데이터 추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쪽의 일에 이용된다.

2003년 12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 이래 2015년 대구시 Pre-스타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 전문 기업(ESP)에 선정되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40~7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매출액은 2019년 12월(GAAP 개별) 기준으로 10억~50억 원 미만이다. 주 고객층은 대구광역시, 대구시교육청 등 정부 기관은 물론 에스-오일토탈유타일 등 기업들과 영남대학교, 수성대학교 등의 대학들이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디지털 혁신경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The IMC 전채남 대표는 “향후 대구지역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업도 변화야만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설명했다.

The IMC의 주력 서비스로는 ‘텍스톰’이 있다. ‘텍스톰’은 방대하고 복잡한 텍스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다. 주로 한 달간 쌓인 문의 내용 중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때, 특정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싶을 때, SNS 데이터로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을 때 등에 사용된다.

텍스톰의 첫 번째 기능은 수집이다.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다양한 언론사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보유 데이터 업로드로 분석 또한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수집 채널을 의뢰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인 정제는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여 다국어 분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 분석은 다양한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호환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 번째 시각화는 수집 결과를 수집량, 단어 빈도, N-gram, Topic Modeling, 개체명인식 결과값을 다양한 종류의 차트로 표현할 수 있다.

The IMC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없는 현실점에서는 수요도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기업 전망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여성 그린나래〉

INTERVIEW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빅데이터의 힘



전채남 The IMC 대표

지난 12월 2일 우리 시리얼(SEE-REAL)은 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을 통해 The IMC의 전채남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는 빅데이터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우리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Q. 기업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The IMC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The IMC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문기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톰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원생, 대학교수, 연구자들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의 R&E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도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사고 예보 서비스, 사과 생산량 예측 서비스, 도시 변화 탐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Q. 아직도 ‘빅데이터’라고 하면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를 주로 하는 기업 The IMC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은 무엇인가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수학에 능통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The IMC의 직원들은 문과 출신 반, 이과 출신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과 출신 직원들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깊이 관찰한 후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글로 표현합니다. 이과 출신 직원들은 그러한 글을 수학을 통해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코딩하는 업무를 합니다. 결국 빅데이터와 우리 The IMC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깊은 관찰력, 표현력, 수학에 대한 관심, 코딩 능력. 이 네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Q.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한 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회계·금융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닐까요?(웃음)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로서 저의 가치관은 ‘틈새를 찾아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기서 틈새란 우리 사회가 충족시키지 못한 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틈새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입니다. 그러한 틈새를 차츰 해결하다 보면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다양해진 소재에 관해 이야기하고, 더 깊은 의견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텍스트를 분석하는 텍스트 빅데이터의 역할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틈새를 찾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 사회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The IMC 전채남 대표처럼, 빅데이터도 멀지 않은 언젠가 인류가 당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남산고 시리얼〉

대구 스마트시티 사업 핵심 역할 수행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INTERVIEW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 'IACT'



김현덕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IACT) 원장

스타트업,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주로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고위험·고수익·고성장의 가능성, 즉 한마디로 어디로 될지 모르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기대해야 하는 특성상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 신생 창업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바로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IACT)이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시리얼(SEE-REAL)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IACT) 김현덕 원장과 기업 인터뷰를 진행했다. 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을 통해 만나게 된 김현덕 원장과의 인터뷰는 질문과 대답의 오감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Q. 우선 기업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IACT)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비영리법인 기관입니다. 공익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며, 개발 후 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발한 기술 중에 현재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서비스와 개발한 기술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업 지원 서비스, 이렇게 총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력으로 하는 것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기술 개발인데요, 현재 이 기술로 임플란트, 척추디스크 등의 의료 분야 서비스에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기술은 오직 우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IACT)만이 선보일 수 있고,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은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먼저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기업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 기업이라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를 최우선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 등을 계속해서 검증합니다.

Q. 지원했던 기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는 '힘콩 재미어트'입니다. 운동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업인데, 체육학과 출신이 창업했습니다. 사실 체육학과에서 운동기구 제작을 배우지는 않지만 스스로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 노력을 저희가 뒷받침해줌으로써 현재는 연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한림기술'인데요, 이 기업은 건축설계업이라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전자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기업 측이 건축 현장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기술원이 해당 기술을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달랐다. 졸업한 학과와 동떨어진 분야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노력을 믿고, 전자에 문외한인 기업과 협업하여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창업기업과 함께 목표를 이룰 때 가장 뿌듯하다는 이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업기업의 발판으로서 역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남산고 시리얼>

기업소개 및 현황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Institute of

Advanced Convergence Technology)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기술집약적이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서 부가 가치가 높은 제조 업종이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네비게이션, GP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다른 기업들과 같이 만들거나 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다. 3D융합기술지원센터, 레이저응용기술센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휴먼케어기술센터, 스마트폰재활용 및 증강응용기반구축, 스마트드론기술센터, 3D프린팅대구센터, IOT ACADEMY, 대구 AI Hub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대외홍보 등을 진행한다. 직원은 연구원과 시설관리인력 등 100여 명이며, 예산은 1년에 3백억원 정도로 운영비 50억원을 제외한 250억원은 연구와 기업 지원 등에 쓰인다. 섬유/의류, IT, 로봇/항공, 의료, 콘텐츠, 전기/전자, 기계/금속, 자동차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총 160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난 'CES 2020'에서 실리콘밸리의 플러그앤플레이와 협약을 맺고 대구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화 단초를 마련하였다. 스마트시티란 스마트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망처럼 연결돼 우리 삶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시를 말한다.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원고 리뉴어블>

직접 개발한 기술과 장비로 중소기업 지원! 누구나 이용가능한 기술개발 시설들!

경북대 IACT

소형 AI 컴퓨터
국내최초! 척추케이지
3D 프린팅 주력

다양한 기술과 장비
3D프린팅, 레이저, 드론, 가상현실, 스마트시티, 의료기기 등

기업의 사업 지원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을 대어

업종구분 없이!
개인의 능력을 존중할
무겁지 않은 자율성 법인

www.mangoboard.net

첨단장비로 진단하는 종합영상의학전문센터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기업 소개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영상의학전문들이 MRI(지멘스3.0T), CT, 초음파 검사, 일반X선 촬영 등 장비들을 갖추고 정확한 영상진단은 물론 판독 그리고 건강검진까지 시행하는 종합영상의학전문센터
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5명의 전문의 원장과 30여 명의 직원들이 영상진단센터와 특성화된 건강검진센터, 닥터스영상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상진단센터에서는 MRI와 CT를 이용한 질병 진단, 초음파를 인체내부로 보낸 후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하여 신체를 검사하는 초음파 진단, 그리고 X-ray와 유방촬영, 골다공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검진센터에서는 종합건강검진과 성인병 검진, 국가건강검진과 5대 암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닥터스영상의학연구소에서는 학생과 의료인력 교육, 다양한 연구, 외부 병원 사진 판독, 해외 의료봉사 등을 진행한다.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은 현재 MRI 3대, CT 2대, 초음파, 일반촬영 등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골다공증검사, 유방촬영검사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MRI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고 영상화하는 진단방법을 말한다. 전국 의원 최초로 도입한 독일 지멘스 3.0 테슬라 장비는 기존의 제품보다 검사 시간이 짧고 화질과 진단능력이 탁월해 과거에는 진단하기 어려웠던 질병도 찾아내고 있다고 한다.

또 CT는 최첨단 기종인 독일 지멘스사의 128채널 MDCT 장비로 정밀한 영상 정보와 정확한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CT가 1개의 채널인 데 비해 MDCT는 128개의 채널을 통해 동시에 많은 양의 검사 정보를 처리하여 짧은 시간 안에 더욱 선명한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기업현황

첨단 영상 촬영 기기와 풍부한 경험 자랑하는 닥터스 종합검진센터

종합건강검진은 건강검진 자체뿐만 아니라 검진 이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검진 장비의 수준과 판독을 하는 의료진의 숙련도도 매우 중요하다.

대구 중구 삼덕동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의 닥터스 종합검진센터는 예약 위주로 진행되며 소수의 검진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영상진단센터의 최고급 장비를 이용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닥터스 종합검진센터에는 내시경 장비와 혈액정밀검사장비, 유방촬영검사장비, 체지방검사기, 골다공증검사기 등 일반검진장비 외에도 정밀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3.0T(테슬라)급 MRI(자기공명영상) 장비와 검사 시간을 줄여주는 MDCT, 지멘스사의 초음파장비, 일반 X-선 촬영 및 특수촬영 검사장비, 유방 및 갑상선 조직검사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오랜 진료 경력을 갖춘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영상을 판독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닥터스영상의학과가 보유한 3.0T(테슬라) MRI 장비는 뇌혈관질환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출혈의 원인 가운데 뇌동맥류 등 혈관기형으로 인한 지주막하뇌출혈은 평소 뇌 MRI와 뇌혈관 MA 검사를 받은 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이나 클립을 이용한 수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목이나 허리 디스크질환 검사나 척추 신경의 종양, 염증 등을 검사할 수 있고, 무릎, 어깨 등 관절질환도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MDCT의 경우 기존 CT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검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 기존의 2차원 영상 대신 정교한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MDCT는 폐암과 폐렴, 폐결핵, 각종 폐기관지 질환 등 흉부질환 검진과 관절을 포함한 골절, 복합 골절 등을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다. 또한 목뼈와 허리뼈 질환, 골육종 등의 검진과 간, 쓸개, 비장, 신장, 췌장 등의 질환 검사 및 각종 복부 암의 검진에 유용하다.

〈출처: 매일신문〉

INTERVIEW

영상의학 분야 전망 ‘밝음’

조길호 닥터스 영상의학과의원장



Q. 영상학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잘 다루어야 하나요?

당연히 장비를 잘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손재주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많이 알수록 더 잘 쓸 수 있듯이 영상학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공부가 우선입니다. 어떤 영상 진단에는 어떤 장비가 더 나은지, 영상 진단에서 생각보다 영상이 잘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지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지요. 전문기사가 촬영을 담당하는 CT나 MRI는 추가로 더 찍을 게 있는지 영상을 보고 진단해야 하는데, 병과 장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요.

Q. 영상학과와의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병의 특징에 따라 영상으로 검사할 때는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병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요. 이상 증상이 영상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영상 진단만으로 모든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항상 노력해야 하지요.

Q. 영상의학 분야 전망은 어떤가요?

영상의학 분야의 진단 장비는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대신할 텐데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의학

진단장비 전문
영상의학

풍부한 임상경험에 최첨단 영상장비 갖춰

MRI(지멘스3.0T), CT, 초음파검사, 일반X선 촬영 등 장비 갖춤

하는 날? 어디 아픈지 검사할 때 검사 장비를 다루는 사람

아래로 것 장비들에 대해 공부할 해야지만 검사들 완전히 다할 수 있다

진학 3년제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합격

〈대진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대구 경북의 자존심이자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사

매일신문사

기업현황

매일신문사, 사회를 바라보는 창을 제공한다

언론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갖고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분석·해설·비판을 제공해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언론은 크게 4가지의 책임을 진다. 첫 번째는 특정 집단에 편향적 보도를 금하는 공정성, 두 번째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여야 한다는 정확성, 세 번째는 타인의 권리와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성, 네 번째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보도해야 한다는 공익성이다. 매일신문사는 이러한 언론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다. 즉, 독자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신문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일까? 다른 신문사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료를 통한 수입이 차지하지만, 여전히 종이 신문 판매를 통해서도 신문의 원동력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매일신문사는 어린이날 대잔치를 비롯한 공익사업, 유튜브와 SNS를 통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신문사는 무엇보다 독자들의 생각, 정서, 요구를 파악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유튜브, SNS 등의 뉴미디어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는 “언론은 공기와 같다”며 “우리 공동체와 독자, 즉 국가와 독자를 이룰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매일신문사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화여고 프롤로그)



기업 소개

매일신문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841에 각각 대구 본사와 경북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이다. 2018년 2월에 취임한 이상택 신부님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임직원 231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8년 연간 313억여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12억여원, 순이익은 17억여원이다. 1946년 3월 1일 설립, 창간되어 올해로 74살 정도로 비교적 오래된 신문사이다. 특이하게도 창간일과 창간기념일이 다른데 이는 대구매일신문에서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한 날인 1960년 7월 7일을 창간기념일로 삼았기 때문이다.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를 사시로 삼아 민족의 정문지로서 지역의 대변지로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지역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는 신문 편집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명실상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이다. 대구·경북에서 발행하는 신문 중 가장 많이 구독하는 일간지인 사실, 1일 발행 부수는 15만 2천여부로서 당당히 대구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11월에는 TV 매일신문이 전국 지역신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으며, 대구·경북 언론사 중 유일하게 네이버 뉴스 채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에는 100만 독자의 선택을 받았다. 기업의 슬로건인 ‘대구·경북이 pick한 뉴스’에서도 대구·경북의 언론을 대표하는 매일신문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매일신문의 독보적인 1위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화여고 BEAT)

INTERVIEW

정화여고 BEAT팀 매일신문사 ‘이창환 기자’를 만나다!

이창환 매일신문사 기자

Q. 기사를 쓸 때 가장 주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생각 즉 반론을 달아주는 과정에서 개인적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써야 독자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합니다. 또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 갈 수 없는 독자들을 대신한다는 ‘독자중심’이 기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자를 위해,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주의하는 편입니다.

Q. 사회부 기자로서 취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3년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사고와 최근에 있었던 트라이애슬론 종목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하철 사고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현장에 갔을 때 경험한 참혹한 현장과 인명 피해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인 동시에 매일신문사가 가장 먼저 단독으로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Q. 기자로서 느낀 보람 및 고충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구 동구·북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 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 사건을 처음으로 알고 집요하게 기사를 써서 ‘일경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등을 여러 건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우리의 피해를 알려주고 보상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기자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은 어떤 직업이든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지만 저 스스로가 선택한 직업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극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취재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즐거움과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 고충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Q. 사회부 기자로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예전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이나 휴식을 가질 시간이 현저히 적은 것 같아 바깥에서 만남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일수록 다른 사람과 만나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화여고 BEAT)



© 매일신문사

매일신문 | maeil_news | @maeil.shinmun

(정화여고 프롤로그)

대구·경북 지역 음식문화 선도하는 에버웰푸드



기업 소개

에버웰푸드는 1999년 법인 설립과 함께 삼성에버랜드에서 분사한 회사로, 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기업이다. 에버웰푸드의 사업영역은 위탁급식, 케이터링, 컨세션, 도시락 그리고 출장뷔페인데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가 학교 위탁급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탁급식의 매출이 하락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락 수요가 급증하면서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는 발열 도시락의 인기도 치솟아 이를 만회하고 있다. 최근 에버웰푸드의 매출을 증가시킨 모락모락 도시락은 기존의 도시락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벗어난 신개념의 음식을 제공한다.

에버웰푸드의 도시락 브랜드 ‘밥안국’의 모락모락 도시락은 국내 최초 실용신안이 등록된 식판형 보온 용기이다. 발열 최고 온도는 90°C, 발열시간은 최대 20분의 보온력을 자랑하며 친환경 발열제로 발열 시 냄새가 거의 없다. 이러한 발열 도시락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는 따뜻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기존 발열 도시락의 경우 발열제 증기가 용기의 밑바닥에만 전해져서 냉동식품을 데우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 도시락은 증기를 음식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해 해결했다. 따라서 도시락의 발열 구역을 나눠 따뜻한 음식과 찬 음식의 분리 발열이 가능하다. 레드 구역이 발열 영역, 블루 구역이 비발열 영역으로 발열 증기가 블루 구역으로는 열전도가 되지 않도록 격벽 구성됐다. 또한 찌땀을 만드는 소재로 제작돼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발열제가 터질 염려가 없으며 사용 후 버려도 토지 중화제로 작용해 환경문제가 전혀 없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또한 전문 조리팀과 영양관리팀의 협업을 통해 구성된 음식으로 거짓이 없는 품질과 중요한 자리에 소홀함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지만 주로 재료의 안정성을 위해 대기업의 식품을 공급 받는다.

에버웰푸드는 이러한 질 좋은 식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1년에 약 15곳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으며, 10여 년간 영호남 지역의 140여 개 사업장의 단체 급식 식당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해왔다. 〈제일여성 백신〉

기업현황

위탁급식·도시락업 에버웰푸드 도시락 커스터마이징으로 고객 사로잡는다!

에버웰푸드의 주력 분야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위탁급식,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터링, 다중 이용시설에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세션, 음식의 따뜻함을 극대화하는 발열 도시락 용기를 이용한 도시락, 전문 조리팀과 영양 관리팀의 협업을 통한 출장뷔페가 있다. 에버웰푸드는 2019년 학교 위탁급식을 시작하여 급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락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트렌드에 따라 음식이 기능성으로 바뀌는 추세다. 에버웰푸드의 도시락은 연령대를 비롯해 다양한 기준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저당음식, 저염 음식도 공급하고 있다. 한식은 에버웰푸드의 발열 도시락 용기를 이용한 모락모락 도시락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음식의 종류이다. 이에 에버웰푸드는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냉동 제품을 도시락화하여 수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일여성 백신〉

INTERVIEW

워라벨 실천하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권영갑 에버웰푸드 대표



Q.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변화가 어떤가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급식 또한 미뤄졌습니다. 회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위탁급식의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그나마 의료진,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도시락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Q. 기업 내에는 어떤 직업군이 있나요?

사무, 마케팅, 회계 등 일반 기업에 있는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만 특별 직군으로 조리사, 영양사, 연구직이 있는데 연구직은 식품, 제품, 발열 용기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힘든 순간은 많지만 아무래도 자금 문제를 겪을 때가 가장 어렵지요. 우리 회사의 경우 학교 급식을 시작으로 급성장했는데, 이때도 여러 요소 중 자금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업 분야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감당해야 하는 자금 문제도 커지는 거지요.

Q. 다양한 납품처에 도시락을 납품하는데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요?

메뉴 구성은 항상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건강관리협회에는 당뇨 환자에 맞는 저당, 저염으로 구성된 당뇨식 도시락을 만듭니다. 이처럼 먹는 사람의 식성, 연령대, 성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거기에 알맞은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Q. 에버웰푸드의 기업문화는 어떤가요?

우선 기업 내에서 직원들이 가장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이고 일과 가정의 밸런스 즉 워라벨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여성가족부 인정 기업으로 지정된 만큼 직원들에게 편안한 직무환경과 기업문화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여성 백신〉

지역민 위한 다채로운 문화콘텐츠 제공

웃는얼굴아트센터



기업현황

‘위기를 기회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온라인 시장 개척 나서

달서구에 위치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및 전시들이 취소·연기되며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선택한다면 이 상황을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CG 기술을 이용해 장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장소·관람 인원 한계를 두지 않으면 하나의 영상으로도 반영구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공연은 배우 및 관계자의 컨디션에 따라 공연의 질이 달라지는데 온라인 공연은 언제나 최상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접근성에 따른 홍보 효과도 확실하다.

실제로 본 웃는얼굴아트센터는 현 상황에 맞춰 유튜브를 이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450명만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온라인으로 최고 조회 수 13,000명을 달성하며 그 가능성과 장점을 증명 및 부각하고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타개법을 강구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일여성 백신〉

기업 소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04년 달서구첨단문화

회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여 약 16년간 지역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55석 규모의 공연장인 청룡홀, 117평 규모의 갤러리, 관내 최대 규모의 예술 아카데미 사업 등으로 상당한 규모를 갖춘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크게 총 4개 분야로 나뉘며 공연, 전시, 아카데미와 수영장 운영을 한다. 공연은 관객들에게 매 순간 만족할만한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한다. 전시회,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많은 강좌를 운영한다. 그리고 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강사에게 강습을 받을 수도 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이름처럼 CI를 웃는 얼굴로 표현했다. 이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달서구민을 나타내며,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달서’라는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달서구민들이 문화 예술과 관련하여 가까운 곳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즐거운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혜택을 받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대구 문화 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 등을 위해 힘 없이 달려가는 중이다.

〈제일여성 백신〉

INTERVIEW

‘달서구민의 문화 동반자’ 역할 수행하는 공연장

김태완 무대감독 · 이현목 음향감독 · 채승훈 조명감독

Q.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04년 개관 이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달서’라는 슬로건 아래 달서구민의 문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연장입니다. 2018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최상의 무대와 컨디션을 갖춘 청룡홀,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가능한 117평 규모의 갤러리, 관내 최대 규모의 예술아카데미 사업 등 최적화된 시설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줄고 관객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미디어를 통한 공연이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의 경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극장에서는 450명만이 볼 수 있었던 공연을 1만 명 이상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니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웃는얼굴아트센터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상을 정한 후에 맞춤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형 공연이면 TV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데, 비용 문제로 주로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합니다. 출연자의 이름만을 이용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이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센터 내 직업군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연장에는 음향감독, 조명감독, 무대감독 등이 근무하고 있고 전시장에는 큐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에는 문화예술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각 해당 분야 강사와 담당자가 있고 센터 운영을 관리하는 운영지원팀과 취업상담사, 하우스어써, 지휘자와 같은 직업군도 있습니다.

Q. 웃는얼굴아트센터와 같이 공연장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평상시 좋아하는 공연을 자주 보거나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필요한 자격증과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다른데 자세한 것은 채용공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는 음악 분야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영, 홍보, 기획 등이 많이 들어오며 일반 기업과 비슷해졌습니다.

Q. 업무 중에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나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요?

좋은 무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출연자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리허설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하며 매 공연마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Q.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추구하는 부분이나 발전하려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관객들이 보기 좋은 공연을 하는 것, 무엇보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화여고 귀자단-귀중환 소식을 전하는 기자단〉

캐주얼 모바일게임의 미래, 게임개발 벤처기업 카이엔터테인먼트

기업현황

카이엔터테인먼트, ‘테일즈런너’ 모바일 게임 출시!



2005년 8월 1일 라온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테일즈런너’ 게임은 동화를 배경으로 게임 속 캐릭터가 친구들과 함께 점프, 수영, 스키, 줄타기 등을 하며 진행되는 레이싱 게임이다. 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고 있으며 전 세계 회원이 무려 6,000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게임이다.

우리가 항상 컴퓨터로만 즐길 수 있던 ‘테일즈런너’ 게임이 2021년 3, 4월쯤 모바일로 출시될 것이라고 한다. 모바일 게임 개발에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의 개발사(웨이투빗)와 카이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다. 웨이투빗과 카이엔터테인먼트는 테일즈런너 IP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을 일반 버전과 블록체인 버전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바일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 교환에서 사용자 정보가 위조되고 변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웨이투빗과 카이엔터테인먼트는 이 기술을 이용해 게임 회원이 데이터 위·변조로부터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이엔터테인먼트측은 “온라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이질감 없이 pc에서 모바일로 이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원고 리뉴어블〉

INTERVIEW

“직원이 행복한 기업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

정현석 카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카이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인의 자질은 인성이라고 한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을 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인성을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로 실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한다.

카이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을 만들 때 ‘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를 더 우선시한다고 한다. 일반 게임과는 차별화된 게임을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카이엔터테인먼트의 운영 이념은 직원이 행복해지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벤처기업이고 투자에 더 힘을 쏟다 보니 수익이 크지 않아 직원들의 복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함께 협력하여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업을 성장시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 4일제 등 더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게임 개발 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뿌듯한 부분은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내서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때라며, 앞으로도 더 독특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KAI 카이엔터테인먼트

주력상품

테일즈런너 모바일

PC버전과 이질감 없이!!

꼬마마법사 레미

출시 21년만의 게임화!!

개발현황

IP 이용하여 현재 개발 막바지
내년 3,4월 주력상품 출시 예정!!

채용정보

직원이 행복하길 바라는
정현석 대표님의 카이엔터!!
채용은 수시로 진행중
게임개발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바로 지원 ㄱ

〈경원고 리뉴어블〉

기업 소개

카이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기

업으로 직원 수는 40명 정도다. 기업 이름에 들어가는 카이의 뜻은 진뎛개같이 일본에 있는 지역의 토종 개 이름으로 충직함이 특징이라고 한다. 읽기 쉽고 편해서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덕분인지 어찌다 보니 일본과의 비즈니스가 잦아졌다고 한다.

카이엔터테인먼트의 채용 방법은 국내 여타 게임 기업들과 비슷하게 수시 선발하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채용한다. 채용할 때 면접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인성 부분을 많이 본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 전체로 봐서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실력 못지않게 인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카이엔터테인먼트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돼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3년 만에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시간에 기업이 안정세에 들었다고 한다.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 개발 중인 퍼즐 게임, 모바일 테일즈런너, 꼬마 마법사 램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원고 리뉴어블〉

첨단 뇌 연구를 지향하는 뇌 연구 기관 한국뇌연구원



기업 소개

한국뇌연구원은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응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 12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에 설립되었다. 한국뇌연구원은 뇌신경계 질환, 뇌신경 생물, 뇌인지, 뇌공학 등 4대 중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238명이 재직 중이다.

한국뇌연구원의 뇌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분야를 나누어서 사람의 행동과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기도 하고 세포 단위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SCI급 우수 연구논문 88편 게재 및 특허 5건 출원, 초고속 뇌투명화 및 3차원 조직 면역염색 기술 개발, 루게릭병, 전두엽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발병원인 규명 등의 성과가 있다.

한국뇌연구원에는 3대 추진전략이 있는데 이는 핵심역량 강화, 개방형 뇌 연구 인프라 구축, New Frontier이다. 핵심역량 강화의 중점과제로는 융합기술을 통한 뇌신경망 구조 및 기능 연구 등이며, 개방형 뇌 연구 인프라 구축의 중점과제는 첨단 뇌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공용 활용 촉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New Frontier의 중점과제로는 글로벌 뇌 연구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주도 등이 있다.

실제로 한국뇌연구원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와 학생 교류 및 연구 협력이나 뇌 연구 발전 도모, 학술 및 연구 교류, 인력·자원·기술 교류 협약을 맺고 있다. 또한 국내 여러 병원이나 뇌 연구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과도 협약을 맺어 더 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화여고 BEAT>

기업 현황

‘한국뇌연구원’ 뇌 분야에 관한 국책 연구 기관

우리의 뇌는 내로라하는 컴퓨터보다 더 무한하고 우주보다 더 신비로운 기관이다. 이러한 뇌에 대해 연구하는 뇌과학은 뇌의 신비를 밝혀내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응용 학문이다. 에밀리 디킨슨은 “뇌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며 신처럼 무겁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 싸여 있다.

그러나 과거 20년 동안 밝혀진 뇌에 관한 지식은 지난 200년 동안 이루어진 지식을 훨씬 능가한다.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의 뇌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뇌 영상 기술의 개발 덕분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뇌 질환 환자의 사망 후 그들의 뇌를 해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연구만이 가능해 연구의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었지만, 뇌 영상 기술의 발달로 실제 살아 있는 사람의 뇌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뇌 기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뇌 연구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신경세포들은 각각 수천 개 이상의 신경연접을 맺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어느 나라라도 뇌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혁신의 불꽃이 될 것이다. 뇌연구원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뇌 연구는 단순히 한 분야에 몰두해 연구하는 것이 아닌, 뇌의 얽히고설킨 작용 원리와 의식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문화 전반에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추구한다. 아직 뇌 분야 연구는 걸음마 수준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개척지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화여고 영송징주>

INTERVIEW

“치매 없는 세상이 언젠가는 오겠죠?” 이새별, 백경량 연구원과의 인터뷰로 알아보는 뇌 연구 현황

이새별, 백경량 한국뇌연구원

Q.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할 때 흔히 IQ를 말하는데, 실제로 학습 능력에 IQ가 연관돼 있나요?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분야를 검사하는데 언어지능 분야는 직접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 감성과 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으면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언어성 지능 분야는 학습 능력보다는 타고난 하드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Q. 뇌연구자로서 청소년 및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OECD에서 3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문해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2배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교과서만 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과서에 생략하고 요약한 부분이 적잖는데 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비언어적 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가 힘들지 않았나요?

실험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자폐아 상담의 경우 계속 만나서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데 대면 상담을 못 하게 됐어요. 아쉬운 대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자폐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큰 보람일 것 같아요.

Q. 뇌연구원의 최종 목표가 뇌질환 극복인데 이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숙제죠. 뇌 영역에 관한 우리의 연구 수준은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있는 정도예요. 온몸을 담그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긴 호흡의 연구로 바라보고 있어서 언젠가 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화여고 영송징주>

우리의 뇌가 궁금해?

한국뇌연구원

첨단 뇌 연구를 지향하는 기관

- SCI급 우수 연구논문 88편 게재 및 특허 5건 출원
- 초고속 뇌투명화 및 3차원 조직 면역염색 기술개발

- 4대 뇌 연구 분야 (뇌신경계 질환, 뇌 신경 생물, 뇌인지, 뇌 공학) 중점연구를 수행
- 뇌연구분야의 독보적인 국내최대의 Think-Tank 역할 수행

대구·경북 최대 규모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랑 해성병원



기업 소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96에 있는 해성병원은 이전의 해성병원을 개축하고 경영진과 의료진, 행정요원까지 새롭게 바꾼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이다. 132개의 병상을 운영하며 지역의 핵심 재활치료 병원으로 자리 잡은 해성병원은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3개의 분야의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이 뇌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돌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신경치료, 언어치료, 호흡 재활 등을 하는 재활치료사와 업무 행정,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직업군이 분포되어 있다.

지금의 해성병원이 다른 재활치료 병원과 차별화된 점은 뇌신경계질환 환자 특성화 맞춤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성병원의 뇌신경재활센터는 분야별로 구성된 치료팀이 환자 개인의 개별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뇌신경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특수 클리닉으로 인지 재활 클리닉, 통증클리닉, 삼킴장애클리닉, 경직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성병원은 후유장애가 심각한 뇌신경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뇌와 신경에 관한 질환을 통합 진료하기 위해 ONE-STEP 통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성병원에서는 뇌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뇌신경재활의학과 특화치료를 도입하여 뇌질환 환자의 질환 재발 예방과 합병증 발상을 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하고 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환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성병원의 뇌신경재활의학과 특화치료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전기 자극 치료, 연하 장애 치료, 일상생활 동작 치료로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성병원은 현재의 위치에서 더 나아가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는 암 재발 방지 병동을 열어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뇌신경 재활과 암재활을 접목함으로써 기존에 없는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현황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목받는 '해성병원'

해성병원은 재활의학과·신경과·내과·산부인과·한방의학과가 진료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재활의학 부문에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자랑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성병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뇌신경재활과 암재활을 접목시킴으로써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고자 2020년 10월 별관 아리즈웰(암재발방지) 병동을 오픈, 뇌신경재활 분야뿐만 아니라 암 재활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해성병원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기여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성병원은 대구하나센터와 탈북민 치료를 위한 MOU를 체결해 대구 지역 탈북민 1300여명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지원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돕고 있다.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 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선풍기 100대를 대구지방보훈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성병원은 또한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2명을 채용해 환자들의 이동 보조, 물리치료 보조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천고 팩트취재)

INTERVIEW

“환자와 함께 생활하며 치료해가는 데 보람”

윤성근 사무국장 · 최윤희 간호사
이주영 물리치료사 · 장지현 작업치료사



Q.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의 종류와 하는 일에는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은 재활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재활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주로 환자 케어와 진료에 관한 부분, 치료사는 환자들에 대한 신경치료, 언어치료, 호흡 재활 등의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의 성과가 높다고 봅니다.

Q.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환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지만, 아무리 친하더라도 환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구성원들 모두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회복 한계성 환자를 만나거나 보호자가 치료 도중에 포기할 때 같은 경우죠.

Q. 해성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병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환자가 입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과 최적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의 감정 상태 변화, 재활 치료 과정, 진료 과정 등이 항상 매끄러울 순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환자의 불편함이나 보호자의 바람을 공유하고 해결해주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Q. 환자들을 치료, 케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환자들이 뇌를 다치면 인지 변화가 심하다 보니 기억력, 판단력 등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한 환자는 병원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경찰서에 연락하고 병원 주변을 살살이 찾아다니느라 난리를 피웠는데 알고 보니 고령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환자의 재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을 자주 겪는 건 재활병원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뇌신경 재활 건강검진병원

함께한 20년, 함께할 미래

해성병원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드리는 해성병원이 되겠습니다.

Q. 해성병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성병원의 최종목표는 환자가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환자와 소통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안에서 모든 직원은 관련된 업종과 환자들을 돕기 위해 발달 비자료를 열어 수익금 기부!

충북경북
대학교 병원
뇌운행

대구
인양원

대구시
장애인
재활원

대구
하나
센터

MOU
체결

진료안내

진료 과목

뇌신경재활의학과 특화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전기자극 치료 연하장애 치료 일상생활 동작치료

진료분야

ONE-STEP

진료 진단 치료

진료 종류

뇌출혈, 뇌경색, 뇌성마비, 척추손상, 근골격계, 말초신경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96 | 문의전화) 053-760-1001 / 010-8411-1003

(매천고 팩트취재)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

공감 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